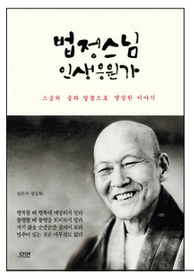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2/18~12/24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낡은 옷을 벗어라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6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대행스님 법어집)	대행스님	한마음선원
2	지금 이대로 좋다	법륜스님	정토출판	7	아침이 힘든 당신에게(홍파스님이 보내는 짧은 편지)	홍파스님	모과나무
3	아함전서 (전16권)	김윤수	운주사	8	당신의 마음에 답을 드립니다(목종스님 상담에세이)	목종스님	담앤북스
4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김원수	청우당	9	스님의 라이프 스타일	원영스님	불광출판사
5	요가 디피카	B.K.S.아헹가/현천스님	선요가	10	신이 쉼표를 넣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말라(인도 우화집)	류시화	더숲

"가난의 덕을 혜택으로 바꾸니 가난과 동거하고 싶어져"



법정 스님 인생응원가
정찬주 지음
다연 펴냄
1만 5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이 책은 법정 스님의 재가제자 정찬주 작가가 2020년 입적 10주기를 맞아 스님을 추모하며 당신의 말씀과 생전 일화를 암자 같은 저자의 남도 산중 산방에서 담백하게 담아낸 인생 에세이이자 명상록이다.

이제 인생의 향기 은은한 법정 스님의 말씀과 침묵을 통해 명상하며 맑고 향기로운 차를 음미하듯 '다연(茶宴)' 같은 책 속으로 들어가 보자.

"그동안 발간하신 스님의 산문집 중 스님의 사상이 드러난 구절들만 뽑아 책을 한 권 만들어보겠습니다."

이는 법정 스님의 재가제자 정찬주 작가가 샘터사 편집자 시절, 길상사 행지실에서 차담 중에 스님의 동의 아래 다짐한 말이다. 하지만 시간은 회오리 바람처럼 거칠게 지나갔고, 정 작가는 끝내 스님 책을 만들어 드리지 못한 채 스님을 먼 길로 떠나 보냈다.

그리고 또 10여 년 세월이 전생의 시간처럼 아득히 멀어진 지금, 2020년 3월 11일 입적 10주기를 즈음해 그날의 말씀을 조심스럽게 실현했다.

사실, 법정 스님에 관한 여러 권의 인연 이야기, 자기계발서는 스님의 글과 말씀을 단순히 표면적으로만 다루며 독자들을 명언쯤의 지식 대상으로 접근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었다. 생전에 '좋은 말에서 해방되기'를 원한 스님은 "내 책을 징검다리로 삼아 침묵하면서 지혜를 얻어라. 왜 좋은 말만 좇느냐" 하셨던 만큼 이 책은 그 뜻에 걸맞은 진실한 명상의 시간을, 스님의 참뜻을 독자들에게 전해준다.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의 중압감과 물욕으로 말미암은 상실감에 허덕이며 고단히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책은 위안과 더불어 진정한 행복의 길을 밝혀줄 것이다. 이 책으로 법정 스님을 다시 만나 스님의 사상을 음미하며 다시금 신산한 삶을 사는 데 힘을 내보자. 그래서 '법정스님 인생응원가'다.

이 책의 핵심은 작가가 연필로 표시하거나 메모해 두었던 스님의 글 혹은 말씀 구절들이다. 작가 자신에게 명상의 주제와 가르침이 되었을 뿐 애석하게도 스님을 흠모하는 사람들과 공유할 기회를 잃어버린 만큼, 작가는 오랜 숙고의 시간을 들여 글 형식을 자신의 방식대로 하여 독자들과 함께할 명상록을 집필했다.

'명상, 스님의 공감언어' '명상, 스님의 공감법어' '명상, 스님의 명동성당 특별강론' 등 총 3부로 구성했는데, 이 책의 주요 구성은 '마중물 생각' '스님의 말씀과 침묵' '갈무리 생각'으로 서론·본론·결론의 형식을 취했다. '마중물 생각'은 스님의 가르침을 청하는 청법(請法)의 글이라는 의미에서, '스님의 말씀과 침묵'은 스님의 가르침은 물론 그 너머 스님의 침묵까지 헤아리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 그리고 '갈무리 생각'은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연상해낸 작가 상념이나 단상, 작가 삶의 흔적을 명상한 글이자 작가의 고백이다.



법정스님 '말과 침묵' 통해 명상 속 초대
마음 티끌 쓸어준 풍경소리 같은 명상록

특별히 책 표지에 공개된 법정 스님의 흑백사진은 불일암 덕조 스님이 소장한 것인데, 50대 후반에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희귀 사진이다. 스님의 선의지와 깐깐한 지성이 미소 속에 묻어 있는데 영락없는 평소 얼굴인 것이다. 이제 법정 스님 입적 10주기를 즈음하여, 다시금 스님을 추억하고 그 말씀으로 명상하며 이 세상과 내 인생을 잠잠히 들여다보자.

▲저자 **정찬주 작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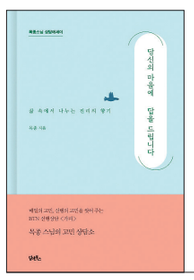
호는 벽록(檗綠). 1953년 전남 보성서 태어나 동국대 국문과를 졸업했고, 상명여대부속여고 국어교사로 교단에 섰다가 십수 년간 샘터사 편집자로 법정 스님 책들을 만들면서 스님의 각별한 재가제자가 되었다. 법정 스님에게서 받은 '세속에 있되 물들지 말라'는 무염(無染)이라는 법명을 마음에 품고서, 전남 화순 계당산 산자락에 산방 이불재(耳佛齋)를 짓고 2002년부터 자연을 스승 삼아 벗 삼아 집필에만 전념 중이다. 장편소설 〈산은 산 물은 물〉 〈소설 무소유〉 〈암자로 가는 길〉(전 3권)을 비롯해 이 땅에 수행자가 존재하는 의미와 우리 정신문화의 뿌리를 일깨우는 수십 권의 저서를 펴냈다. 장편소설로는 〈이순신의 7년〉(전 7권) 〈천강에 비친 달〉 등이 있고, 산문집 〈법정스님의 뒷모습〉 등이 있다. 또한 행원문학상, 동국문학상, 화쟁문화대상, 류주현문학상을 수상했다.

책 속의 밑줄 긋기

"스님께서는 무염(無染)이라는 법명을 주시면서 '저잣거리에 살되 물들지 말라'며 짧은 법문을 해주셨다. 이후 나의 법명은 내 인생의 좌우명이 됐다. 산중에서 살면서 느끼는 것인데 가끔씩 돌아가신 스님의 말씀이 메아리가 되어 사라지지 않는다. 스님의 말씀은 깊은 산의 메아리처럼 울림이 크다. 저물녘에 눕는 산 그림자같이 여운이 길다. 산이 품고 있는 오래된 침묵에 응답하는 메아리 같다. 나는 스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침묵을 헤아리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빛을 잃어가는 내 영혼이 시나브로 맑게 닦이는 듯하다."

"가난에 덕(德)이 있다니 무언가를 발견한 것 같다! 풍요의 반대인 결핍의 가치라고나 할까. 가난의 덕을 가난이 주는 혜택이라고 바꾸어보니 가난과 동거하고 싶어진다.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린 눈'이란 '본래의 눈'일 것이다. 우리는 본래의 눈에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의 색안경을 끼고 사니까 말이다. 잔이 비어 있는 것은 채우기 위해서이다. 버리고 떠나기도 마찬가지. 그러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새로운 삶의 출발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타인과 자기 대할 때 무조건 내려놓자"



당신의 마음에 답을 드립니다
목종 지음
담앤북스 펴냄
1만 5천원

〈구하지 않는 삶의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목종 스님의 두 번째 말씀집이다. 〈당신의 마음에 답을 드립니다〉는 36개의 일상적 질문과 36개의 부처님 해답으로 간추려져 있다. 1부에서는 타인과의 갈등, 세상과 부딪치며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들을 짚어 본다. "만나면 불편한 사람이 있을 때 대처법"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노력만큼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지" 등의 질문에 불교적 관점에서 명쾌한 해답을 주고 있다.

2부에서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질문과 내적 고민을 다룬다. 평소 누구나 궁금해할 법한 질문도 있다. "평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교통사고가 났는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있는 건지"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남의 빈소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지" 등이다. 자비와 인과의 관점에서 풀어내는 해답이기에 일반적인 조언이나 심리학적 조언과는 다른, 인상적인 대답이 많다. 갈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보다 더 신행의 길에 가까이 다가서고자 한다면 새겨야 할 말이다.



"내려 놓을수록 이득이다"
답 찾지 못하던 질문에 답하다

"내 뜻대로 관철시키는 게, 가져오는 게 행복이 아니라 '상대방이 행복한 것이 오직 내 뜻입니다.'라고 했을 때 나는 훨씬 행복해집니다. 상대도 그렇고요. 이를 불교에서는 '하심'이라 합니다." 이 책에서 저자인 목종 스님이 자주 언급하고 있는 말이 있다면 바로 하심(下心), 내려놓음이다. 저자는 아상과 집착을 버리고 "내려놓을수록 이익"이라고 말한다. 사람을 대할 때도, 자기 자신을 대할 때도 저자는 내려놓기를 권한다. 그 사람이 내 뜻대로 해 주기를 기다리기보다 그 사람의 뜻대로 해 주고, 재산이나 명예로 행복을 추구하기보다 '구하려는 그 마음을 쉴 것'(106쪽)을 권한다. 이렇게 우리는 어떤 조건하에서만 행복하기보다, 어떤 조건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이것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이다.

김주일 기자

▲저자 **목종 스님**은?

1987년 범어사서 출가한 이후 10여 년간 토굴에서 정진하며 공부했다. 2009년 '모든 생명체의 행복을 위해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실천하라'는 기치를 내걸고 대광명사를 창건했다. 해운대구청, 부산백병원 지도법사이자 부산지방경찰청 경승, 달라이 라마 방한추진회 사무총장,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 부총재로서 교계와 지역사회에 열심히 보살행과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으며 특히 BTN신행이야기 〈가피〉와 부산 불교방송(BBS) 〈목종 스님의 월요법문〉을 통해 생활 속에서 함께하는 불교를 목표로 전법에 힘쓰고 있다.

